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6월 8일(수), 오후 2~4시

일본 역사 교과서 속의 가야

이 영 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일본 역사 교과서 속의 가야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I . 머리말

- “일본사 교과서의 문제는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1960년 대 말 ~ 1970년 대 중반 이후 고대사한일관계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이후 학계에서는 ‘남선경영론’ 이나 그 중심 통치기관이었다는 ‘임나일본부론’ 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1980년대 이후에는 채택율 50% 정도의 도쿄서적東京書籍 등의 일본사 교과서에서도 적극적 ‘임나일본부론’ 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각주에 그런 해석이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 그러나 2001년에 극우의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가 발간되면서 한·일간의 일본교과서문제는 또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 더구나 근년 아베(安部晋三) 정권의 탄생 후 일본 내각의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참배, 1991년 걸프만 전쟁부터 시작된 자위대 해외파견海外派遣에 이어,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위한 해외파병海外派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침체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사망자 1만 5,894명, 실종자 2,562명, 5년 지난 지금 18만 여 명 주민들 피난생활, 후쿠시마福島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일본 안전신화의 붕괴 등으로 심각한 좌절에 빠진 일본사회의 불만과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듯 우익적 교과서 문제 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일본사교과서의 현재에 대해 어떻게 간행되고 채택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한 뒤, 마침 지난 해 2015년 4월 19일에 방영되었던 본인 출연 KBS 「역사저널, 그날」 <일본,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임나일본부>를 함께 보면서, 현재 ‘일본사 교과서 속의 가야’는 어떻게 기술되고

있으며, 관련의 기본사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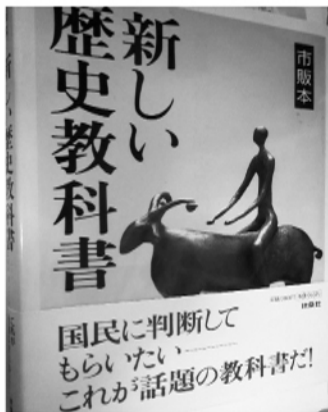
II. 일본사 교과서의 현재와 가야사 서술

- 고교 : 일본사 A (주당 2시간) + 일본사 B (주당 4시간) = 약 26종 다양
- 검정 : 4년에 한 번 주기적인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해야 간행 가능
 - * ‘우라 검정’ : 채택 금지 또는 방해 조직에 의한 검정
- 채택 : PTA+학교장 = 학교별 자율 채택
 - * 채택율 : 45%전후 ~ 0.3%까지 천차만별
 - * 대입시험 : 전국 통일적 수능 없다.
 - 대학 별 독자적 일본사 출제



• 근년에 다시 교과서문제에 불을 당겼다. 西尾幹二 외 13명,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2001.6.

• 대표집필자 : 니시오칸지西尾幹二, 도쿄대東京大 독문과, 『国民の歴史』 『わたしの昭和史』, 電気通信大教授, 東京大문학박사 「초기의 니체」, 1994 정론대상 수상, 2015 瑞宝中綬章 수훈. 「つくる会」 활동, 新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設立人, 1996. 8 후지오카藤岡信勝와 각계 유지를 불러 들여 「つくる会」



발족, 초대회장, 교과서 운동 전면서 활동, 2001 『新しい歴史教科書』 간행, 2006년 「つくる会」 탈퇴.

• 채택율 - 2001년 0.03 ~ 0.1% ~ 최근 1% 도달

III. 일본사 교과서 속 가야 또는 임나 관련 서술과 문제점

- 근년 일본사 교과서의 가야 또는 임나 관련기술

〈표 1〉 근년 일본사교과서의 가야 서술

* 이근우, 일본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가야사 기술과 문제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 해안, 2002에서 수정 전재

교과서	지역	서술		
		경과	결과	목적
90-1	변한	세력 뺏침	임나로 칭함	
90-2	한반도남부	진출		앞선 문화 철자원 획득
90-3	가라(임나)	진출	대륙 진출 거점 확보	앞선 문화 철자원 획득
90-4	임나	지배		앞선 문화 철자원 획득
90-5	가라(임나)		대륙 진출 발판 확보	
90-7	가라(임나)		세력 하에 둠	뛰어난 생산기술 철자원 획득
95-1	가야(가라)	밀접 관련	세력 거점 확보	철자원 획득
95-2	가야(가라)	밀접 관계	세력 거점	철자원 확보
95-3	가야(가라)	밀접 관계		철자원 확보
95-4	변한	세력 뺏침	임나로 칭함	
95-5	변한(가라)	세력 뺏침	임나	
95-6	가야지역	침입		
95-7	가라지방	세력 뺏침	임나라 부름	철을 구함
95-8	가라제국		우호관계	
01-1	가야(가라)		우호관계	
01-2	가야(가라)	세력 뺏침	조선반도 진출	철과 뛰어난 획득
01-3	가라제국	가야 임나	진출	선진문화 철자원 획득
01-4	가라(임나)	세력 뺏침	거점	뛰어난 생산기술 철자원 획득
01-5	가라(임나)	세력 뺏침	거점	철자원과 선진기술

- KBS 「역사저널, 그날」 〈일본,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임나일본부〉를 함께 보면서 참고해야 할 관련사료들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주장과 그에 대한 간단한 비판을 제시해 본다.



- 일본사 교과서 서술에 활용되고 있는 가야 관련 사료들
-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교과서적 주장의 근거가 돼 오고 있는 관련 사료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시해 둔다.

1.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 “기원 4~6세기 2백 년 동안 한강 이남의 백제·신라·가야제국을 근대의 식민지처럼 경영했던 중심적 통치기관이다”라 주장하였다.
- 『일본서기』 웅략기(5세기 중후엽)의 1건에 흠명기(6세기 전반)의 22건 모두 통치에 관한 기술은 전혀 없고 오로지 외교 관련기술 뿐이다.
- 일본부日本府의 일본은 왜倭, 부府는 관청을 뜻하는 ‘후府’로 읽지 않고 ‘미코토모치御事持’ 곧 임금 어御, 일 사事, 잡을 지持로 임금의 일을 받드는 사람 = 사신이 실체인데, 가야에 장기체류하는 내용을 보고 『일본서기』 편찬자가 府의 한자를 빌려 표기하였던 것이다.

2. 칠지도七支刀

<앞면> 태화 4년(372) 여름의 가운데 달 오월에 불의 힘이 가장 왕성한 16일 병오丙午의 날 정오正陽에 수없이 두드려 강철의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모든 병기의 해를 물리칠 수 있으니, 공손한 후왕侯王에 적합할 것이다. 오랫동안 좋은 효험이 있기를 기원한다.

〈뒷면〉 이제까지 이런 칼이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王世子인 기생奇生이 성스럽고 덕이 있어 왜왕倭王인 지즙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하여 보이기를 바란다.

-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은 『일본서기』 신공기의 이른바 ‘가라칠국평정전승’의 사료를 칠지도와 연결해 왜가 가야 7국을 평정해 백제에게 주었고, 백제가 감사하는 뜻으로 바쳤다는 이른바 ‘헌상설獻上說’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가라칠국평정전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란 364년에 백제가 가야(탁순국; 창원)의 중개를 통해 왜와 통교를 시작하고, 366년에 가야를 포함하는 백제 + 가야 + 왜의 군사동맹으로 발전시켰다는 것뿐이다.
- 이렇게 성립된 백제와 왜의 군사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은 백제 왕세자의 이름으로 「칠지도」의 제작을 명했고, 372년에 왜에 사신을 파견해 전달하였다.
- 군사동맹의 기념물로서 무기인 칠지도가 선택되었고, 명문에도 “이 칼은 모든 병장기의 해를 물리칠 수 있으니”라는 구절이 새겨졌던 것이다.
- 명문판독에 시비가 많지만 주는 주체가 백제 왕세자王世子, 받는 주체가 왜왕倭王으로 되어있음은 한일학계에서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 명문에서 백제 왕세자와 왜왕은 대등한 위치로 서술되었다. ‘헌상’이 아닌 ‘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더구나 이 시기 왜에는 금상감 기술이 없었던 시기로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왜왕에게 선진기술을 선보여 군사동맹으로 이끌어 내려 했던 것이다.
- 이때 346~372년에 성립한 백제+가야+왜의 군사동맹은 19년 뒤인 「광개토왕릉비」가 기록한 391년 신묘년辛卯年 이래 고구려+신라 VS 백제+가야+왜의 대결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3.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 츠다쓰우키치津田左右吉
만선철도주식회사 동경지사 조선역사지리연구실 연구원
-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岩波書店, 1924 : 황실모독죄, 투옥
-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 등을 믿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본의 임나지배를 증명할 사료가 있다. 「광개토왕릉비」가 그것이다”

百殘新羅 旧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海破百殘□□[新]羅以為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중략)… 五十八城七百餘村. 백잔(백제를 낫춘 말)과 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서 조공해 왔었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391)에 바다를 건너 와서 백잔과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영락 6년(396) 병신 丙申의 해에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잔국(백제)을 토벌하였다. …(중략)… 58성 700여촌을 공략하였다.

九年乙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為民 婦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 9년(399) 己亥의 해에 백잔이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가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 아뢰어 말하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히 성과 못을 파괴해 노객(신라왕이 고구려왕에 대해 스스로 낮춰 부르는 말)을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왕에게 귀의해 명을 청합니다. 태왕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어 그 충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 하였다. 사신을 보내 계획을 고하게 하였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至任那加羅徙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大潰. 城□□□□盡□□□安羅人戍兵新□□□□[其]□□□□□□□□言 □□□□□□□□□□□□□□□□□□□□□□□□□□□□□辭□□□□□□ □□□□□□潰□□□□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國崗上

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 10년(400) 庚子の 해에 보병과 기병을 5만을 보내 신라를 구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따라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그 안에 가득하였다. 바야흐로 관군이 이르니 왜적이 물러 났다. 그 뒤를 쫓아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아라인수병 安羅人戍兵이 신라성을 ... 아라인수병 安羅人戍兵이 ... 아라인수병 安羅人戍兵을 ... (어떻게) ... 하였다.

- 391년 왜병의 활동은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의 58성 700촌을 공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략하기 위한 전제로 기술된 것으로 광개토왕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왜를 과대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
- 본래 백제와 신라가 복속민이었다는 서술도 사실이 아니지만, 더구나 복속돼 있던 백제와 신라를 왜가 차지했기 때문에 공략하러 나간다는 것은 광개토왕이 정복사업을 벌이기 위한 명분 쌓기와 같은 서술이었다.
- 이와 같은 신묘년(391) 기사의 명분 뒤에 396년(永樂 6년)에 결국 공략하는 것은 백제의 58성 700촌으로 되어 있다. 왜병의 활동이 과장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만일 왜병이 백제와 신라를 공략해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396년에 해소되는 것이다. 200년 동안이나 ‘임나일본부’를 두어 ‘남선경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 이 전쟁은 고구려+신라의 연합과 백제+가야+왜의 군사동맹체 사이의 실력대결이었다.

4. 5세기 왜 5왕의 한남부명 책봉칭호

- 사지절도독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동장군+왜국왕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

- 5세기의 왜왕은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등 한남부제국명이 포함되는 군사호를 중국 남조로부터 수여받았다. 이대로라면 왜왕이 한남부제국에 대해 현재 미군사령관이 한국정부에 예산과 병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 권리를 중국왕조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된다.
- 중국왕조가 한남부에 대한 왜왕의 군사권을 보장할 리는 없지만, 일본사교과서의 대부분은 이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등 중국 사료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고대 일본이 한남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그러나 동일한 중국 복인귀족이 양자강 이남으로 남하한 후에 받았던 칭호, 백제왕이 자기 중국계 신하들에게 중국 산동~화북 지역의 군태수 郡太守 호를 제수시키고 자신을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동청주자사 東靑州刺史 호를 제수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왜왕의 칭호에 포함된 한남부제국명은 일본열도에 이주했던 한계통 신하들에게 받게 했던 출신지명이고 왜왕은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남부제국명을 나영한 칭호를 신청 제수 받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영식, '임나일본부' 를 재해석한다, 『역사비평』 26호, 1994.가을; 임나일본부는 왜의 통치기관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한일관계사학회, 1998; 『한일관계이천년-고·중세편-』, 경인문화사, 2006.5.
- 이영식,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의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7, 2001.
- 이근우, 일본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가야사 기술과 문제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가야사』 해안, 2002.
- 이영식, 칠지도는 정말로 일본에 바치는 선물이었나,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한일관계사학회, 1998; 『한일관계이천년-고·중세편-』, 경인문화사, 2006.5.
- 이영식, 4~6세기 백제와 왜의 교류사, 『백제의 대외교섭』 백제문화사대계 9, 2007.6.
- 이영식, 최근 한일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9.

Note.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지역의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 역사 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